



동구 · CIS

EU 경기침체로 중·동구 국가들 수출증가 둔화

EU 제국의 경기침체가 중·동구 국가들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작년 한 해 동안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금년 들어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의 현재 단기적 수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수출구조의 개선으로 對EU 수출 신장

지난해에는 중·동구 국가들의 최대 수출시장(총수출의 약 70%)인 EU 지역의 경제성장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對EU 수출은 여전히 호황을 누렸다. 특히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3개국은 지난해 10~15%의 對EU 수출액(미 달러 환산 기준) 증가를 기록한 바 있으며, 슬로바키아도 7%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세계의 무역금액 증가율이 2000년에 비해 13% 포인트나 감소하여 1%에도 미치지 못한 데 비하면, 이 지역 국가들의 수출신장은 괄목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 지역 국가들은 과거 수년간 제조업 부문에 집중된 수출지향적 투자와 혹독한 산업구조 조정의 결과 이 같은 수출신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 단순히 저임 노동력에 의존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우던 과거와는 달리, 이 지역 수출기업들은 급격한 가격변동 및 경기순환에 따른 수요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고부가가치 분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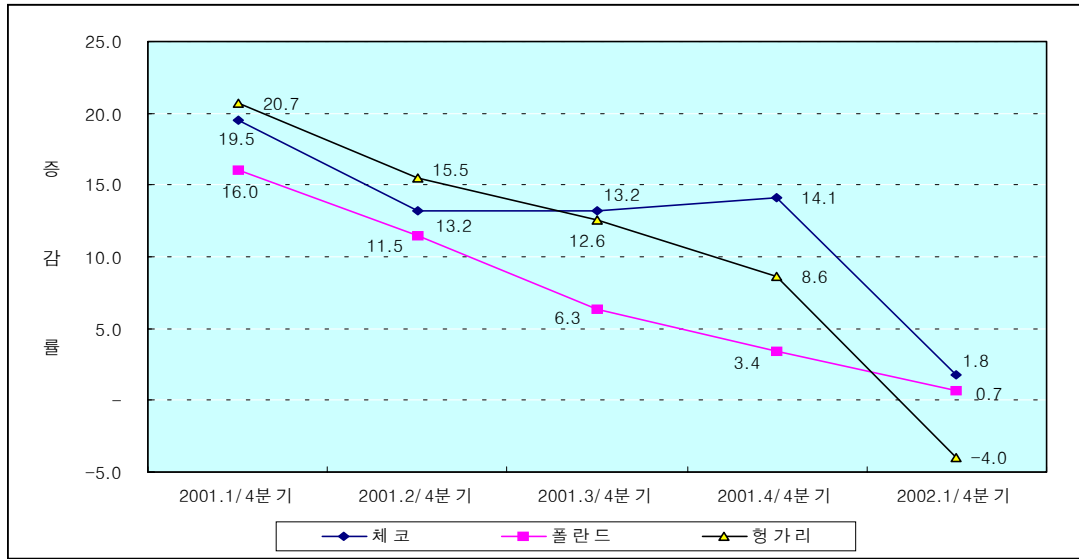
또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EU 각국이 인건비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는 중·동구 지역에서의 투자를 늘림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의 수출품목도 노동집약적 품목에서 전자·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분야의 고부가가치 부품 및 자본재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그 결과 이 지역 국가들은 EU 지역의 경기침체에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었고, 對EU 수출도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수출증가율은 하락 추세 보여

〈그림 1〉

중·동구 3개국의 전년동기 대비 상품 수출액(미 달러 환산) 증감률

단위 : %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ational central banks.

그러나 중·동구 국가들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며, 2001년 한 해 동안의 對EU 수출증가율은 1/4분기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급기야 일부 국가의 경우, 금년 초 뚜렷한 수출 감소가 산업생산 및 GDP 성장률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체코의 경우 금년도 1/4분기의 수출금액 증가율(체코 코루나貨 기준)이 전년동기 대비 2% 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역시 전년동기 대비 1.4%의 부진한 성장에 머물렀다. 슬로바키아에서도 금년 1/4분기 동안 수출이 4% 가까이 감소한 결과 3월중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헝가리의 경우 수출은 다소 나은 수준이나, 1/4분기 산업생산은 역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폴란드는 상황이 가장 심

각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내수경기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양상을 띠고 있다. 폴란드의 금년도 1/4분기 제조업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상품 수출액(미 달러 환산 기준)도 4% 감소하였다.

이 같은 수출 부진 및 산업생산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이 지역 국가들 총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의 침체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대우, 피아트, 폴크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금년 초 생산액이 전년동기 대비 40~60% 감소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체코는 최대 수출시장인 독일에 대한 금년도 1/4분기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기의 2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편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 쉽지 않을 듯 따라서 중·동구 국가들이 현재의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EU 지역, 특히 독일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동구 국가들은 다른 중·동구 국가들 및 다른 대륙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수출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EU 지역내에서도 경기침체에 빠진 독일로부터 영국, 네덜란드 등 다른 EU 국가들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다변화의 효과도 결국은 단기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체코 및 헝가리의 對독일 수출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독일의 경기회복에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EU 지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불과 0.1% 포인트 상승한 1.6% 수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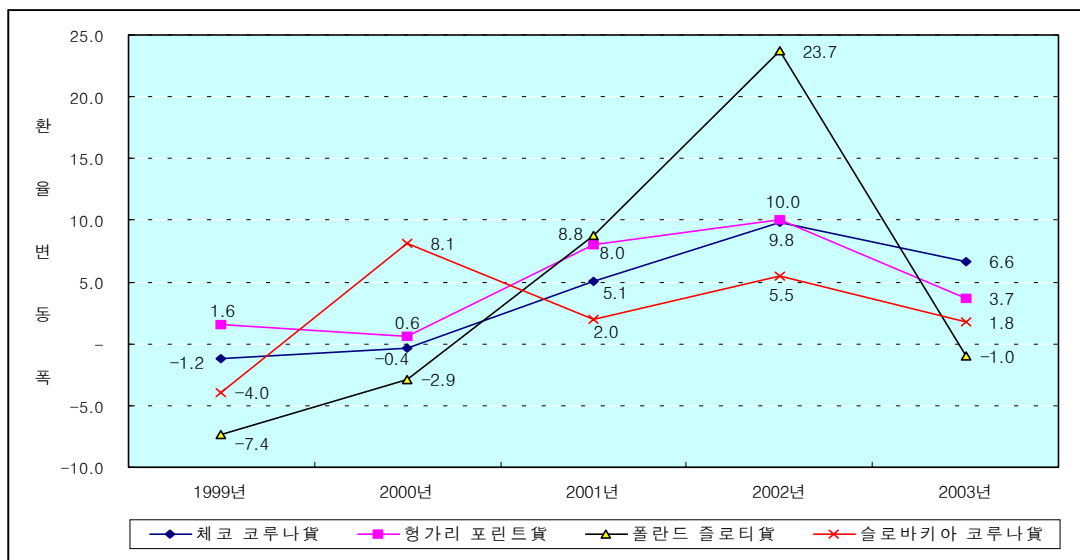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동구 지역의 조속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수출경쟁력의 약화에 대한 우려 지속

동시에 이 지역 국가들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이 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외국인투자 증가에 힘입어 자국통화가 유로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체코 코루나貨는 지난해 초부터 5월까지 유로貨에 대하여 무려 15%의 가치상승을 기록하였고, 같은 기간 헝가리 포린트貨는 10%, 폴란드 즐로티貨도 5%의 對유로貨 가치상승을 기록하였다. 이 지역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이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국통화 강세는 수출로부터의 수입(收入)을 크게 잠식한 것으로

〈그림 2〉 무역가중치를 반영한 중·동구 4개국의 對유로貨 실질환율^{주)} 변동폭

단위 : %



주 :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된 수치임.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분석된다.¹⁾

여기에서 제조업 부문의 임금이 잠재적으로 개선가능한 생산성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체코와 헝가리의 경우, 2000년까지는 계속 하락하였던 단위당 노동비용이 지난해부터 뚜렷한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올해에는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중기적 전망은 비교적 좋은 편

그러나 중기적 전망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다. EU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독일이 내년에는 2.6%의 경제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EU 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도 중기적으로 2.5% 안팎으로 회복되어 중·동구 지역에 대한 수입 수요 또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

망된다. 여기에다 2004~05년을 전후한 EU 가입이 본격화되면, 중·동구 국가들의 對EU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를 주도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이 지역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집중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어 신규 투자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외화유입의 감소가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중·동구 지역 통화의 실질가치 상승폭을 내년부터 상당 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 증가율 역시 비록 예년만은 못해도 계속 EU 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총선이 끝남에 따라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도 온건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중·동구 4개국의 실질 GDP 성장률 및 재화와 용역의 실질 수출 증가율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체코	GDP	3.6	3.6	4.4	4.2
	수출	12.0	9.5	14.4	10.1
헝가리	GDP	3.8	3.6	4.3	4.1
	수출	9.1	7.8	11.8	10.3
폴란드	GDP	1.1	1.5	3.3	4.3
	수출	11.8	4.2	8.3	10.0
슬로바키아	GDP	3.3	3.7	4.0	4.1
	수출	6.5	8.7	8.9	8.3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ViewsWire Eastern Europe

【吳 昊 駟】

1) 예를 들어 자국통화가 유로화에 대해 강세로 돌아서서 유로화와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이 1:100에서 1:80으로 바뀌었을 때(자국통화의 평가절상), 가격이 1유로인 상품을 수출하여 얻는 수입은 자국통화 100단위에서 80단위로 줄어들게 됨. 그런데 2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수입은 80단위에서 20% 줄어든 64단위로 더욱 낮아지게 됨.